



재키 청, <월하노인—인연과 혼인의 신>(Yue Lao—God of Matchmaking and Marriage), 2021, 재활용한 중국 달력지, 280×200×150 cm. 2023 프리멘틀 프린트 어워드 수상작. 프리멘틀 시립미술관. 사진: Pixel Poetry Photography. 사진 제공: 재키 청.

### 재키 청: 종이 위에 새긴 기억의 지도

재키 청(Jacky Cheng)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출신 작가로, 현재 서호주(Western Australia) 브롬(Broome)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드니에서 건축을 전공한 그는 이민자로 서 겪은 소속감의 부재와 다문화적 정체성을 작업의 중심 주제로 탐구해 왔다. 그는 종이와 섬유를 주재료로 삼아 '집'과 '소속', 그리고 경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교류와 개인의 기억을 탐구하며,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잇는 독창적 조형 언어를 펼쳐 낸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조상에 제지(祭紙)를 바치던 경험은 그가 종이와 가까워지게 해 준 계기였다. 유학 시절에는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버려진 종이를 활용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종이는 그의 작업에서 중요한 골조가 된다. 재키 청에게 종이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세대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기억과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는 호주 원주민 공동체와 교류하면서 호주에서도 자신의 문화권에서와 마

찬가지로 조상과 영혼을 기리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관계 속에서 '집'의 의미를 새롭게 사유하게 됐다. "나는 기억하기 위해 만든다."라는 그의 말처럼, 그의 작품은 개인적 경험과 공유된 기억을 엮어 정체성과 소속감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청주공예비엔날레에 참석한 후 그는 "청주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한국 사회가 공예와 예술, 창의성을 이토록 풍성하게 기념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수준 높은 공예 작품과 세심한 전시 연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관람객이 제 작품 속에서 문화적 공통점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출신 중국인이지만 지금은 호주에 살고 있듯이 우리는 모두 이동하고 섞이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같은 실 위를 지나가는 거죠. 제 작업을 통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끼길 바랍니다." 오선미



재키 청, <대화 II>, 2019, 재활용한 중국 달력지, 밀랍, 18×24×24 cm. 사진: Melissa Cameron. 사진 제공: 재키 청.